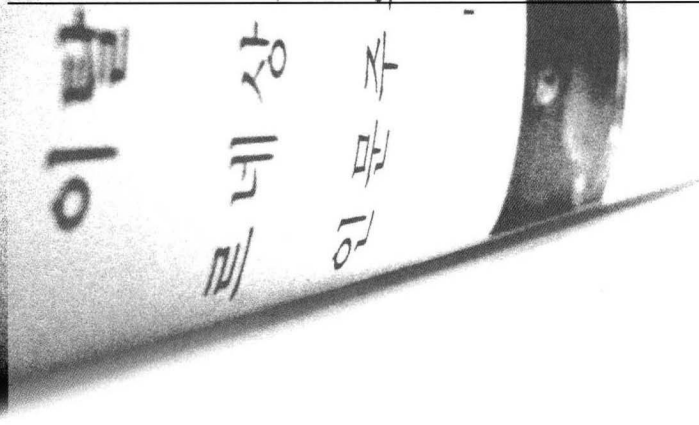


르네상스의 미술을 더듬어 살피는 분적과 실증의 치밀한 행보 - 임영방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출판저널〉이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연중기획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임영방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이 선정됐다. 7월의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저널〉 기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6월 10일 1차 회의를 열고 전체 추천도서 10종을 4종으로 추려내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복득규 외 6인이 쓴 《한국 산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클러스터》, 표정훈의 《책은 나뉘는 운명을 지닌다》, 박지향의 《일그러진 근대》, 임영방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이상 네 종의 책이 2차 최종 선정회의로 넘겨졌다.

선정위원회는 이틀간의 크로스 리딩을 거쳐 6월 12일 최종 선정회의를 가졌다. 네 종의 책 모두 한 권의 텍스트로서 나름의 장점과 소구 이유를 뚜렷이 가지고 있었다.

복득규 외 6인의 경제전문가가 쓴 《한국 산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클러스터》(삼성경제연구소)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클러스터'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분석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평이 있었다. 이 책은 정보·지식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생산성의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현대의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책은 나뉘는 운명을 지닌다》(궁리)는 1990년대 한국 출판계가 얻은 인적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출판평론

가 표정훈 씨의 출판칼럼을 묶은 책이다. 책에 대한, 신앙과도 같은 열렬하고 진지한 애정이 섬세한 지성과 만나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표정훈 씨의 글들은 책과 출판의 거룩한 운명에 대해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박지향 교수가 쓴 《일그러진 근대》(푸른역사)는 비교사의 관점에 입각해 100여 년 전 근대의 여명기를 개괄한다. 영국의 각종 문헌을 꼼꼼하게 뒤진 저자는 영국인의 시각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근대적 상황을 치밀하게 탐문한다. 기자들은 이 책에 대해 문명과 야만, 진보와 정체 등이 혼재된 근대의 본질을 일깨우는 충실한 역사교양서로서 독자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영방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은 방대한 텍스트의 양과 그 양이 충분히 담보하는 품격 있는 내용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대 그리스 미술을 본보기로 비례, 균형,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조형과 이상적인 사상을 추구했던 르네상스 미술의 전형성을 밝히고자 한 저자의 학문적 열정과 연구자세가 돋보이는 책이다.

선정위원들은 네 종의 책을 놓고 장시간의 회의 끝에 〈출판저널〉 7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임영방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을 선정했다. 이 책의 의의는 예술이 문화적으로 향유되는 현대에 있어 학문적 전문성이 어떻게 품격 높은 교양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지를 보여줄 하나의 모범 사례라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에 기자들은 동의했다.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바란다.